

헝가리 유람선 참사...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최선”

“모든 외교채널 · 가용 자원 동원”

靑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유가족 애도, 실종자 가족 고통스런 시간에 마음 아파 내 가족이란 마음으로 지원... 구조상황 모르는 일 없어야 해외여행, 사진 안전관리 강화 더 중요... 개선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구조·수색작업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구조와 수색에 제약 받고 있어 더욱 애가 탄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 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방청 국제구조대, 해경 등에서 출동해 파견한 합동수색구조팀이 헝가리 당국과 공동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다뉴브 강의 빠른 유속과 불안정한 시계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자의 유실 및 유해 손상을 막기 위해 잠수부 투입을 원하고 있는 반면, 헝가리 당국은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유람선 인양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런 시간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분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게기를 바란다”며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피해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했다. 이어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마음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시신 운구와 장례 지원, 생존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필요한 조치들도 성의를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경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통해 가족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황을 설명하며 상처 치유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구조·수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인접 국가들에 대한 사의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있는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구조, 수색 장비를 지원해준 오스트리아와 체코 정부, 수색에 공조하고 있는 세르비아·크로아티아·불가리아 등 하류 지역 국가 정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헝가리 현지와 국내 파견의 구조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없도록 유의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해외 공관의 영사 조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맞이해 사고 후 영사 조력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뉴시스



육아 아빠들과 행복한 시간 김진숙 여사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가족지원센터 강당에서 '몸으로 소통하는 부자' 프로그램을 참관한 후 육아 아빠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정부24'에 6·25전사자 명부 공개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행정서비스 종합 포털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 6·25 전사자 명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명부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심의 자료 일부가 제공됐으나 이번 6·25 전사자 명부 공개로 유해 없이 위패만 모셔진 전사자의 유전자(DNA) 시료채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 사업으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만여 명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했다. 하지만 유가족 유전자 DNA 시료가 부

족해 발굴된 전사자 중 132분(1.2%)만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24 홈페이지 하단 롤링배너의 '전사자 명부 검색'을 클릭하거나,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찾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된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16·25)로 전화하면 직접 방문해 채취해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고귀한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인도적 지원 필요... 한미공조 긴밀히”

미 국방장관 대행 접견 “北 비핵화 진전까지 제재유지 원칙 재확인” 새너헨 대행 “한미동맹 믿어, 방위태세 평화해결 기여하는 중”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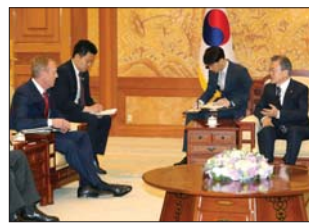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는 방안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패트릭 새너헨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뉴시스

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균간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새너헨 대행은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며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헝가리 유람선 수색’ 테스트 잠수부 투입... 가능성 점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이니호의 선체 내부수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잠수부가 투입된다.

3일(현지시간) 오전 헝가리 당국과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최종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부터 헝가리 측 2명·우리 정부 측 2명 모두 4명의 잠수사가 다뉴브강 수면 밑으로 진입한다. 가라앉은 허블레이니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다.

외교부 관계자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수중작업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잠수사를 투입할 것”이라며 “투입 포인트는 사고 현장에 배치된 바지선”이라고 했다. /뉴시스

도의회, 오늘 오후 1차 정례회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2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6일간 각종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2건 심의와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지의정활동을 펼친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희자 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은 해당 위원회별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특히, 17일과 18일은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각종 주요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있다.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 1일차 17일에는 최찬욱(전주10), 김만기(고창2), 조동용(군산3), 김명지(전주8), 김기영(익산3)의원이, 2일차 18일에는 문승우(군산4), 송지용(완주1), 오영근(전주2), 이정민(남원1), 김종식(군산2)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